불교계는 이미 봉축분위기 '후끈'

불교 각 단체, 자비의선물 전달, 점등식 등 개최



4월 10일 여의도 한복판에서 열린 언론사불자회의 점등식 모습.

부처님오신날을 한 달여 앞두고 불교계는 이미 봉축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각 사찰을 비롯해 종립학교와 직장직능단체 등에서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다양한 봉축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장 먼저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비의 선물 전달이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5월 2일 부처님오신날 각급 부대 97개소에 전달될 자비의선물의 발송을 시작했다. 올해 전달되는 자비의선물은 과자류4종, 핸드크림, 합장주, 소책자 등 총 3만개로 현물가치로 1억 여원에 달한다.

조계종 경찰전법단도 4월 14일 조계사에서 중앙경찰학교, 경찰대, 경찰병원 등에 부처님오신날 맞이 자비의선물 3000개를 전달한데 이어 4월 23일 봉은사에서 서울청 기동단에 자비의선물 4500개를 전달한다.

자비의선물은 씨리얼과 비타민C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경찰전법단은 각 사찰에서 전 · 의경 후원을 위한 모금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언론사불자들의 모임인 조계종 포교원 산하 **언론사불자연합회(회장 정일태)**는 4월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불기2561년 부처님오신날 점등식' 을 거행하고, 탐진치 삼독심에서 벗어나 불국토 실현에 앞장설 것을 서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과 언불련 지도법사 현진 스님 등을 비롯해 주호영 국회정각회장, 선상신 BBS불교방송 사장, 김성권 대한불교청년회장 등 1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점등식은 헌다를 시작으로 삼귀의례, 반야심경 독경, 발원문 낭독, 축가 등 순으로 진행됐다.

종립대학인 **동국대(총장 보광)**도 4월 11일 서울캠퍼스 팔정도에서 '2017 연등점등식' 을 개최했다.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치러진 이날 행사에는 이사장 자광스님과 총장 보광 스님을 비롯해 교직원, 총학생회장, 대학원총학생회장, 학생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

또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이대원)**도 11일 교내 백주년기념관 앞 광장에서 500여 스님과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점등식을 열었다.

국회 정각회(회장 주호영)도 4월 1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앙분수대에서 봉축점등식을 봉행한다.

이밖에 서울 대표사찰인 **봉은사(주지 원명)**는 4월 22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제6회 유아수계법회를 개최한다. 봉은사는 매년 태아부터 10세 어린이까지를 대상으로 유아수계법회를 봉행해왔다. 이날 유아 수계법회는 법회에 참가한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위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의식을 최소화해 진행할 예정이다.

조계종 총본산인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4월 19일 동자승 단기출가 삭발 수계식을 개최한데 이어 27일 관내 독거어르신을 돕기 위한 자비나눔 행사도 개최한다.

조계사 측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보다 보살피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마음만 굴뚝같던 창업 서울형MC로 창업에 특허출현까지!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성공창업사례 ① 중구 '조명스타일' 유충열 대표



중구 을지로에서 '조명스타일' 을 운영 중인 유충열(38) 씨. 같은 업종의 직원으로 8년간 근무하던 그는 창업에 대한 의지는 있었지만, 창업자금은 넉넉지 않고 뚜렷한 담보도 없어 은행 대출이 힘들었다. 그러던 그는 현재 월평균 3,800만원 매출을 창출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가 창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던 방법은 무엇일까?

유 씨가 현 사업장 '조명스타일' 을 2013년 4월 오픈할 수 있던 것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 이하 조계종복지재단)의 도움이 컸다. 조계종복지재단 산하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던 중 조계종복지재단이 운영 중인 소상공인 대출 지원 사업 마이크로크레딧(MC)을 알게 된 것. 유 씨는 이후 내방상담을 받고, 현장실사 및 선정심의를 통해 1,500만원의 창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유 씨는 "개인 신용도가 낮은 편은 아니지만 담보가 마땅치 않아 대출이 힘들었다. 그런데 조계종복지재단이 소정의 절차와 신고 과정을 거쳐 대출을 지원해줘 정말 좋았다"며 "창업 후 가계도 안정을 찾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 매우 좋다"고 말했다.

현재 유 씨는 삼성SDS, 토니버거, BHC 등 다수 브랜드에 납품하며 안정적인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 이에 총 대출금 중 60%를 상환한 상태다.

특히 유 씨는 조계종복지재단이 창업자금 대출 지원 후 전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경영컨설팅을 통해 특허까지 받을 수 있었다. 유 씨는 격월마다 방문하는 경영컨설팅 전문가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현하고 싶다고 문의했고, 전문가는 특허 정보 제공 및 서류작성 등의 절차를 조언해 2016년 4월 조명과 관련한 실용신안 디자인특허를 취득했다.

조계종복지재단 측은 "특허 신청 방법을 일반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재단에서 파견한 경영컨설팅 전문가가 절차에 대해 조언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추가적인 상표등록을 진행 중에 있다"며 "출현된 1개의 특허권 외에 나머지 2개 아이디어도 충분히 특허출현이 가능하단 의견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란?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무담보 저금리대출사업으로, 사업자의 자활을 돕는 금융지원사업.

▶지원내용은?

이 율 : 고정금리 연 1.8%
대출기간 : 총 5년(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자금지원 : 창업자금(최대 3,000만원 이내 자기자금 범위 내 지원)
경영개선자금(최대 2,000만원 이내 지원)
신청절차 : 상담–신용정보조회–서류작성 및 첨부서류 준비–현장실사–선정심의–신용보증재단 금융심사–우리은행 자금지원(대출승인)
신청문의 :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복지경영부문 (02)723-5101

동국대 총동림동문회 올림픽 성공기원 잔치

4월 6일 평창 미탄면서 300여 어르신에 점심공양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불자들의 다양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총동림동문회(회장 혜정)는 4월 6일 평창 미탄면에서 평창올림픽 성공개최 기원 지역어르신 나눔잔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총동림동문회 회장 혜정 스님, 사무총장 지담 스님, 고문 학명 스님과 수석부회장인 도원 스님 등 총동림 동문회 스님들과 지역 어르신 300여 명이 참석했다.

총동림동문회 회장 혜정 스님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앞서 평창지역에서 스님들이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 어르신들을 모시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 총동림동문회는 2016년 12월 경기도 남양주에서 첫 나눔잔치를 연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지역 나눔잔치다. 총동림동문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나눔 활동으로 부처님 자비 나눔을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부처님 가르침 따라 지하철 통합, 화합으로

5월 8일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 통합을 앞두고 서울메트로법우회(회장 김영만)와 도시철도공사법우회(회장 임재화)가 4월 11일 메트로법우회 법당에서 개최한 법회는 교계 안팎의 관심을 모았다. 서울시가 급작스럽게 발표한 '서울교통공사' 출범에 앞서 이날 법우회 회원들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양 회사 회원들이 화합하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불자들 자비심, 행복바라미 기부로 전해요"

행복바라미, 4월 22일까지 300여 사찰 비롯해 500곳서 집중모금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이기흥)이 진행하는 2017 나눔문화캠페인 '행복바라미' 집중모금이 4월 22일까지 펼쳐진다.

행복바라미 캠페인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1차 집중모금과 지역문화제, 행복바라미문화대축전이 진행되며, 백중까지 ARS와 CMS를 이용한 온라인 모금이 진행된다. 가을에는 산사축제를 기해 거리모금이, 겨울에는 동지를 전후로 동지나눔 행사와 전통문화 알리기 행사, 2차 집중모금이 실시된다.

이번 1차 집중모금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를 비롯한 200개소와 300여 사찰 등 500개소에서 펼쳐진다. 모금은 현금모금함과 함께 기부용 단말기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날마다좋은날 측은 "행복바라미 캠페인은 나눔문화의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불자들의 따뜻한 자비심을 우리 사회에 전하는 이번 모금 캠페인에 많은 동참 바란다"고 말했다. (02)733-7277

노덕현 기자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